

함평군 35억 들여 구입한 추사 작품 애물단지 전략

추사박물관 건립 무산

전남교육박물관 조성 추진

활용방안 못찾고 수장고 방치

교육박물관 내 전시관 설치 요구

함평군·도교육청 해법찾기 난항

함평군이 35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구입한 추사 김정희 작품들이 추사박물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략해 막대한 현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작품들은 추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함평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함평군과 전남도교육청은 추사박물관이 아닌 202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전남교육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추사박물관 조성과 관련 전남도교육감, 함평군수, 이현 서예관장은 추사 관련 작품 기증 및 기념박물관 건립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2016년 의회의 반발과 지역 내 논란속에서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사 작품 30점을 구입했고 50점은 무상으로 기증받아 총 80점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감과 함평군수 등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의견차를 보여 추사박물관 건립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추사 작품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수년째 수장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도교육청이 추사박물관이 아닌 전남교육박물관 조성을 추진하면서 추사박물관 건립과 추사 작품 활용 방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228억원을 들여 함평엑스포공원에 연면적 5426㎡(지상 3층) 규모로 전남교육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함평군은 건립부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상의 군수 취임과 함께 합의에 들어가 옛 함평여고 정문앞 엑스포공원 내 부지로 옮기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사 작품 전시관 설치를 놓고 두 기관이



추사 김정희 작품이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보관돼 있는 함평군립미술관 수장고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r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함평군은 전남교육박물관 내에 추사 작품 전시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전남교육박물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이 없던 30억원 상당의 박물관 조성 대응 투자비와 박물관 운영비로 매년 1억여원을 함평군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함평군의회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비용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추사 작품 활용 방안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추사박물관 건립 협약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사 작품을 구입했는데 전시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며 "전임 단체장들이 바뀌다 보니 사업 목적이 다소 바뀌었으나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갖고 다각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영덕 의원 선출



제8대나주시의회 후반기 를 이끌갈 의장에 김영덕 <사진>의원이 선출됐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의장 김영덕의원, ▲부의장 이광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준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의원, ▲경제산업위원장 강영록의원이 당선됐다.

재적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김영덕 의원은 15표 중 10표를, 단독 출마한 이광석 의원은 10표의 찬성표를 얻어 부의장에 선출됐다.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영덕의원은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을 지냈다.

김영덕 의원은 "시민의 뜻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농업인 권익 대변 담양군 농업회의소 집행부 구성

초대 회장에 이문태 전 농민회장

담양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대의기구인 (사)담양군 농업회의소 집행부가 구성됐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초대 회장에 이문태 전 담양군농민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과 감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을 비롯한 일반회원과 주민들이 참석해 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출범을 열망하는 지역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초대 임원진은 ▲회장 이문태 ▲부회장 김금옥, 박민경, 박영수, ▲감사 설정현, 현병학 및 이사 30

명으로 구성됐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2월 대의원 선출을 시작으로 5개월 간의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회원 수 1000명이 넘는 담양군의 최대 농민 조직으로 앞으로 상향식 농정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이문태 회장은 "농업회의소는 명실상부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농민의회의 성격과 가지고 있다"며 "어려운 농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강한 농업회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지난 30일 선출된 담양군 농업회의소 임원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강진 인재 키우자" 줄잇는 장학금 기탁

군민장학재단 모금액 올해 2억 원 돌파... 전년보다 31% 증가

강진군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움이 손길이 줄이고 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진군민장학재단 모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2억1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봉사단체와 대중회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바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에는 MG새마을금고 희망나눔봉사단(회장 최덕자)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 26일에는 청주김씨 대중회(회장 김규현)에서 200만 원, 청주김씨 김정권 전 대중회장이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

청주김씨 대중회와 김정권 전 대중회장은 이날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임진왜란 당시 강진 출신 김억추

장군 등 의령들의 활약상을 다룬 정찬주 작가의 소설 '뫼다 부른 명랑의 노래' 북 콘서트를 기념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지역인재 육성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25일에는 마라라이온스클럽 박명영 전 회장이 100만 원을, 강남원현 회장이 100만 원의 장학금을 강진군에 맡겼다.

이승욱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5000원)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대표 관광 슬로건

24일까지 공모합니다

브랜드 가치 높여 관광 활성화

화순군은 군 대표 '관광 슬로건'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공모전을 통해 관광 화순을 창의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관광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최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 고인돌 오토캠핑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흥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화순적벽 명소화 사업 등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관광 마케팅 활성화 시책 중 하나로 추진한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관광 슬로건 공모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 슬로건은 군민 선호도 조사와 함께 창의성, 함축성, 상징성, 전달성,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최우수상 1점에 100만 원, 우수상 2점에 각각 50만 원, 장려상 2점에 각각 2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아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